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 보도

2014년 09월 22일
(월요일)

북부신문 4면



인터뷰
interview

강북구의회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매칭사업 증가분과 각종 시설 정비사업 지출시기 등 집중검토할 것”



부족한 예산 적절히 주민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심의 목적

하고 위원장은 김영준 의원이, 부위원장에 유인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박문수, 한동진, 유인애, 강선경 의원 등 4명의 예산결산 위원회를 이끌며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2013년 결산과 2014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김영준 예결위원회장을 만나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봤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3천 840억 9천 899만원, 특별회계 123억 3천 170만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하게 된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24%인 124억 4천 784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Q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각오는?

▲ 초선의원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다. 또 높은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하겠다.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땀방울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툴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해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2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우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접목해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산심사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함은 물론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와 우선순위에 맞게 잘 쓰이도록 짜여있는지 심의하는 것이다.

동료 의원들의 기대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이며, 생산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가장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3 예결특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처리할 사안은 무엇인가?

▲ 이번 추경예산안은 약 124억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해 안타깝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예결위 임무가 아닐까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인 매칭사업이 늘어난 부분과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지출의 시기 및 적정선 지출사유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Q4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은?

▲ 지역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력해 지역화합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Q5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일하는 의원을 만들기 위해선 변함없는 성원이 큰 밑거름이 된다.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심사숙고를 통해 2014년도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 툴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심의하겠다”

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소신있게 심의에 임하겠다.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땀방울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툴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복안이 있다면?

-우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접목해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료의원들의 기대와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생산적이고 예결특

위를 운영하고 가장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 예결특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처리할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추경예산은 약 124억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안타깝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예결위 임무가 아닐까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인 매칭사업이 늘어난 부분과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지출의 시기 및 적정선 지출사유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은?

-저를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력해 지역화합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특히 일하는 의원을 만들기 위해선 변함없는 성원이 큰 밑거름이 된다.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심사숙고를 통해 2014년도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밝힌다면?

-초선의원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영광이고 기쁘다. 또한 높은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4명의 동료

“거짓 없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겠다”

김영준 위원장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번2동에 약 25년간 거주하면서 슈퍼운영을 하던 김영준 의원은 매일같이 새벽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던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겨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도 지칠 틈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구의원으로 당선 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으나 그 중 청탁민원이 들어올 때가 가장 힘겹다고 하였다. 또한 여·아를 떠나 동료의원들끼리 잘 화합해야 할 것을 항상 세기며 실천하여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소감에 대하여

“부족한 저를 2014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또한 높은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소신 있게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땀방울



율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틀의 쌀알 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우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접목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함은 물론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와 우선순위에 맞도록 잘 짜여있는지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의 기대와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생산적이고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가장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결특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처리할 사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약 124억으로 예산이 넘어야 하는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예결위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인 매점사업이 늘어난 부분과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지출의 시기 및 적정선 지출사유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저를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독주를 경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력해 지역화합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며, 특히 “일하는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성원이 밀거름이 됩니다.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심사숙고를 통하여 2014년도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프리 6면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준 의원

‘구민 삶 질 위해 ‘예산’ 꼼꼼히 살피겠다’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준(번1·2동, 수유2·3동) 의원, “선심성 행정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 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꼼꼼히 살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준 예산위원장은 “살기 좋은 지역은 박대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조그만 관심과 배려로 만들어 진다”며 “강북구민의 장점을 살리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소감

부족한 저를 2014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영광이고 기쁨니다. 또한 높은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소신 있게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땀방울이 빛 험 있는 예산을 한 틀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를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해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우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접목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함은 물론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와 우선순위에 맞도록 잘 짜여있는지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의 기대와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생산적이고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가장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결특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처리할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약 124억 원으로 예산이 넘어야 하는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예결위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인 매점사업이 늘어난 부분과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지출의 시기 및 적정선 지출사유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 적십자 봉사회는 RCY 학생들과 함께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강북구의회의 경우 RCY 학생들과 국수를 만들어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RCY 학생들은 각자 모은 회비로 수혜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고, 강북지구협의회에서는 RCY 학생들이 순수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봄시일 내 강북중학교 RCY 학생들과 희망봉자 대상 어르신들과 어버이 결연을 맺어 인성교육과 함께 진정한 봉사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은?

저를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독주를 경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력해 지역화합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일하는 의원을 만들기 위해선 변함없는 성원이 밀거름이 됩니다.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심사숙고를 통해 2014년도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일 기자